

교톰 이쿠오에 의한 엔화의 국제화를 위한 제언

- 경제 패권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
 - 리먼 쇼크 이후, 세계의 패권적 지위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
-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려는 의도
 - 소련, 일본, 유럽 등은 미국을 패권국가로 인정하여 왔으나,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 의도를 가지고 있음
- 엔의 국제적 지위가 아시아 통화체제를 좌우
 - 아시아의 경제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아시아통화에 대한 주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, 중국의 위안이 아시아기축통화가 될지, 아니면 공동통화라는 형태가 될지는 일본 엔의 국제적 지위 유지 가능성에 달려 있음

* 이 자료는 교톰 이쿠오 국제통화연구소 이사장이 경제신문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내용임

□ 경제 패권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

- 최근까지도 미국의 달러가치에 대한 위협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△미국의 지속성장 유지 △미국의 국가 파워 등의 이유로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
 - 미국은 대외 적자에도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, 수출국들도 미국의 강한 수요에 힘입어 수출주도형 성장을 유지
 - 국가 파워에 있어서도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흔들림이 없고,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통화도 없음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, 세계패권의 지위를 유지해 왔던 미국의 기본조건이 흔들리기 시작
 - 미국과 신흥국 간의 상호의존, 확대되는 글로벌 무역불균형 현상에 따른 성장이 지속불가능하게 되었고, 중국 등 신흥국경제성장이라는 현상으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파워 시프트 이동이 진행
 - 미국은 08년 이후, 과도한 차입으로 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, 미국의 대외적자가 확대되어 미국 국채발행 잔액 9조 달러의 약50%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美국채에 대한 신용도 유지가 어려워짐
- ⇒ 전후 세계경제를 지탱해 온 성장패턴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됨

□ 중국의 미국 패권에 대한 대항 의식

- 과거 30년간 중국의 발전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파워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
 - 중국의 경제발전 초기에는 생산·소비·투자·무역에서 시작하였으나, 기술·경영·금융 분야로 경제소프트의 파워시프트가 진행되기 시작
 - 이러한 시프트가 가속화 되면, 패권의 중심인 군사·외교·이데올로기, 국제금융시스템 분야까지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
-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,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번성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음
 - 최근 중국은 달러 기축체제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 한편, △위안의 국제화 △완전 교환성 부여를 위한 프로젝트 △상해의 국제금

용시장화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계획을 시동하기 시작했다

- 그러나 중국은 아직 시장기구가 작동하지 않고, 강력한 국가지배 하에서 은행이 자율에 입각한 채산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앓고 있어 비록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매력 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달러를 대신할 수 없음
- 파워시프트의 변화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나, 향후 동향은 미국의 부활 노력과 중국의 발전 지속력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
-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미국에 의한 일극(一極)패권시대는 끝났다는 것이고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는 것임

□ 아시아 통화체제의 미래

- 향후 10년 이내, 아시아에서 달러를 대신할 지위를 둘러싼 경쟁 이 위안과의 사이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
- 일본 엔의 지위는 세계 4위 국제통화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교환가 능한 통화지만 그 지위는 점차 떨어지고 있음
- 그 이유는 △일본의 국가경쟁력 저하 △도쿄의 국제금융도시 구축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이 부족 하다는 것임
- 향후 아시아가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위치가 높아지면, 통화면에서 아시아의 주체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것임
- 중국의 위안이 아시아기축통화가 될지, 아니면 공통통화라는 형태가 될지는 일본 엔의 국제적 지위 여부에 달려 있음

□ 시사점

- 위안화는 중국의 금융기구가 아직 자율 채산적이지 못하고, 해외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가, 통화의 안정성 및 신뢰 측면에서 국제통화로써 근본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
- 그러나 중국 위안화의 수요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위안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그리고 아시아공동통화 가능성에 대비, 한일 양국이 ‘아시아기축통화연구회’를 설립하여 중국 위안화의 국제기축통화 추진을 포함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2.1.12). 「經濟教室：危機に克つ, 円の没落防止 正念場に」